

잠언서 에 나타나는 인간 영적지혜에 관한 고찰*

전 영수**

<요 약>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는 문자로 기록되었다. 특히, 구약성서 원전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본 논문은 구약성서의 지혜문학 5권(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중에서 '잠언'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논자는 본 논문의 구성을 제1장 서론, 제2장 구약성서 이해의 필요성, 제3장 성경의 인간학(기독교 인간학), 제4장 잠언서는 어떤 성경인가? 제5장 잠언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영적지혜, 제6장 결론부분으로 본 논문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요약한다면,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기술하여 어리석은 인간의 삶에서 지혜로운 인간의 삶으로 전환되기를 논하였고, 제2장은 세계정신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으로 히브리 종교를 이해를 위해서 구약성서 이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제3장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실존(기독교 인간학)을 논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과 '사람들 앞에 있는 인간'을 논하였다. 제4장은 잠언의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 지혜관의 3대 특징을 소개하였으며, '잠언'을 기록하게 된 목적과 잠언의 신학적인 의미를 논하였다. 제5장은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영적 지혜로운 삶을 다루는 실제생활에 적용되는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인간과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 가정생활의 관계, 인간과 경제생활의 관계, 인간과 언어생활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잠9:10) 이라고 하였듯이, 과연 나 자신의 삶은 진실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는 인간으로서 헤브라이 사상의 신본주의와 헬레니즘사상의 인본주의가 함께 융합되는 기독교 신앙의 리더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주제어 : 잠언, 인간, 영적지혜

I.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전서 66권 중에서 구약성경의 목차 제 20권 39장의 정경으로 채택되어진 '잠언(箴言)'의 성경말씀을 세밀한 고찰을 통하여 기독교인과 동서양의 모든 인류들이 어리석은 인간의 삶에서 지혜로운 인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본 논문을 기술하기로 하였다.

* 이 논문은 한국로고스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2015. 11. 7)' 성균관대학교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경영학박사수료, 몽골다르항신학대학교(객원교수), ysjames0427@naver.com

예술은 종교적인 차원처럼 인간의 마음을 깊이 끌어 들이며, 인간의 내면에 심오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술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성전을 거룩하게 꾸미고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그들의 노력은 종교적인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음악을 할 줄 알았고 시를 쓸 줄 알았다. 그들의 예술 활동은 곧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어느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노래와 시로 표현하였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는 평상시의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것은 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그들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것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윗의 시는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서는 지혜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다.(잠언3:5-6) 논자(論者)는 '잠언'에서 기록된 지혜의 말씀이 인간의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본서의 말씀을 논(論)하였다.

그러므로 논자는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아굴, 르무엘 등을 통하여 불완전한 인간에게 내려주신 영적지혜의 말씀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생활영역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안고 가야 할 실제적인 생활교훈이 되는 주옥같은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영적지혜의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각성케 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는 영적훈련이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은 두 가지의 교차로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과 '사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이는 인간을 향하여서는 네 이웃(인간)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논자(論者)는 '하나님과 나 자신' 과의 관계 '인간과 나 자신' 과의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언어생활과 품위 있는 경제생활과 나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만사를 지혜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인간이 되기를 언급하였다. 자신과의 영향력을 통하여 이웃과 조직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인성, 지성,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동, 서양의 고전에 보면 모두가 인간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정치, 종교, 경제, 문학, 예술, 음악, 자연, 등을 통하여 성숙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누구나 희망하고 있다. 인간은 각자의 나름대로 자신이 숭배하고 있는 종교 또는 자신만의 독특한 수행을 통하여 고상한 지성과 영성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대부분 종교 혹은 자신이 습득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자신의 노력과 수행만을 가지고서는 역부족이다. 누구나 고상한 인격을 지닌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된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의 한계점을 부정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논자는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내려주신 영적지혜의 말씀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생활영역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논자(論者)는 평소에 교회강단을 통해서 잠언(箴言)서를 본문으로 설교의 말씀으로 선포한 일이 종종 있어 왔으나, 금번에 예배설교가 아닌 학술논문을 통하여 지성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보다 냉철한 판단과 선택으로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고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는 용

(融)복합적인 리더십과 인간존중의 경영을 논하며, 이에 따르는 논문을 기술하려고 한다.

II. 구약성서 이해의 필요성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경전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의 경전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시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의 언급이 별로 없으며, 구약의 거의 모든 경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고백을 계시적 사건으로 중시하고 항상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잠언서 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고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최종진, 1998 : 13)

2.1 신약성서와 서양의 문학과 예술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이해가 필요하다.

초대교회는 구약 이해의 이중성(二重性)에 부딪혔었다.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하고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요, 신약성서의 뿌리가 바로 구약이였다. 그러므로 구약성서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계약 이상의 메시아적 예언서이며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구약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비책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의 책으로 서로 연속적인 구속사건을 내포하고 있다. 서양의 문명과 성서는 분리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단테의 『신곡』, 밀톤의 『실낙원』, 괴테의 『파우스트』, 미켈란젤로의 조각. 렘브란트(Rembrandt)의 그림, 헨델. 바하, 하이든의 음악, 셰스피어의 희곡들, 엘라오트(T.S Eliot)의 시(詩)도 성서적인 배경을 갖고 이해해야 한다.

2.2 세계 정신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상인 히브리 종교 이해를 위해서 먼저 구약의 이해가 필요하다.

서양 문화의 2대 산맥은 ‘히브리사상(Hebraism)’의 신본주의 와 ‘희랍사상(Helle-nism)’의 인본주의 이다. 바로 서양 문화의 정신적 기반인 히브리 사상과 종교를 이해하는데 구약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구약성서는 역사 자료와 고대 종교사 자료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도 역시 세계사의 한 부분 이였다.

팔레스틴(Palestine)¹⁾ 북쪽은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이 위치한 곳으로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가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고대의 헷족속(Hittites) 세력이 팽창했던 곳이었다. 이러한 역사의 한 복판에 끼어서 생존해 온 팔레스틴의 이스라엘이 주변으로부터 오랜 세월동안 침략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와 종교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구약성서 안에는 이들 나라와의 역사적, 종교적 관련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는 고대사(古代史)와 고대 종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III. 성경의 인간학 (기독교 인간학 ; Christliche Anthropologie)

1) 팔레스틴(Palestine) 이라는 명칭은 ‘필리스티아’(Philistia), 즉 ‘불레셋 사람의 땅’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히브리어 성경원전에서 사람을 가리켜 ‘아담(אָדָם ; 사람, 인류)’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아담(‘adam)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창조의 극치로서의 총칭적인 인간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다.²⁾ 그러나 ‘인간(Adam)’은 인간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고 말았다.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지키지 못하고 ‘뱀(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므로 에덴동산의 중요한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 ‘아담(Adam)’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 3:9) 라고 인간을 찾으시는 데서부터 ‘성경의 인간학’의 출발점 이라고 할 수 있다.³⁾

3.1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Homo coram Deo)

아담의 부부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곧바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부르며 찾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낫을 어느 한 순간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coram Deo)’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 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시편139:1-8)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서 그 어느 곳에서도 숨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유는 ‘조물주의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창조주’ 이시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주께서 내 장부(臟腑)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 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시편 139:13-15)

이상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맨 처음으로 생성(生成)될 때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전 생애, 그리고 그 인간의 성품과 생각과 계획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낫을 피하면서 살 수 없는 영적-실존적 존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⁴⁾

2) 한국성서연구원, 『구약신학사전 I』, p.105, 브니엘 출판사(1991)

3) 김재진, 『성경의 인간학』 p.7, 예영커뮤니케이션(2007)

4) 김재진, 『성경의 인간학』 p.549, 예영커뮤니케이션(2007)

3.2 사람들 앞에 있는 인간(Homo coram hominibus)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coram Deo)’ 죄인으로 서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coram Hominibus)’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없이 인간에 대해서만 논(論)할 수가 없으며 또한 인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논(論)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곧 ‘사람들 앞’에서 산다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⁵⁾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증거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이다. ‘보이는 것’ 과 ‘보이지 않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 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속적인 것’ 과 ‘신적인 것’ 들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고뇌’ 라고 할 수 있다.⁶⁾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구제, 자원 봉사,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 내는 전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까지 사랑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

IV. 잠언서는 어떤 성경인가?

4.1 잠언의 사전적인 의미

잠언(箴言, Proverbs ; 격언, 속담)의 사전적인 의미는 단순한 격언이나 속담의 수준을 넘어 ‘훈계가 되는 말’, ‘경계가 되는 짧은 말’ 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잠(箴)이 의미하고 있는 한자는(바늘·잠), (침/針·잠)의 뜻을 의미하는 한자어(漢字語)이다. 이를테면 바늘로 찔러서 정신 차리게 하고 깨우쳐서 훈계한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히브리어 성경원전에서는 잠언을 뜻하는 ‘미살(מִשָּׁל)’은 ‘골수에 사무치는 말’⁷⁾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2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智慧)의 의미

5) 김재진, 『성경의 인간학』 p.563, 예영커뮤니케이션(2007)

6) 김재진, 『성경의 인간학』 p.565, 예영커뮤니케이션(2007)

7) 『그랜드 종합주석/9권』, p.16, 성서교재간행사(1994)

잠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智慧)’란 단어가 41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지혜는 인간의 단순한 처세술(處世術)이나 상황(狀況)에 따라서 대처하는 순발력(瞬發力)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나 지식, 교양, 경험, 구제, 자원봉사, 예절, 도덕, 윤리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히브리어 성경원전에서 명사로서 ‘지혜’를(호크마; חָכְמָה , wisdom)로 표기한다. 원래 ‘굳게 잡다(hold fast)’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영민(intelligent)’ 또는 ‘신중함(discretion)’의 뜻으로 포함되고 있다. 지혜는 전쟁전략의 실행(사10:13)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전문적 작업의 기술에서(출28:3), 금속작업의 기술에서(출31:3,6)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혜롭다’(하카; חָכָם , be wise)는 동사의 표기로 본서에서는 21회를 사용하고 있다. ‘지혜롭게 함(making wise)’, ‘익숙하다(대상 22:15)’, ‘공교하다(대하 2:7)’, ‘현명하다’ 또는 ‘가르침(teaching)’ ‘지혜롭게 행동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성을 의미하는 모든 단어 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이 동사와 그 파생어로서 히브리어 원전 구약성서에서 312회 정도가 언급하고 있다.

4.3 성경적 지혜관의 3대 특징

4.3.1 신본주의적 지혜관

성경적 지혜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결정적인 특징은 여호와 제일주의적 즉, 신본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요 창조주로서 우주, 역사, 인생 등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거이자 원동력이시며 또한 주권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은 인생과 우주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인 지혜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조차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선악의 기준이기도 하시며 그 선악에 따라 종말론적 심판을 행할 분이기도 하시다. 성경 지혜문학은 곳곳에서 지혜의 출발이자 최종 결론으로서 거듭하여 여호와 경외를 외치고 있다. 8)

4.3.2 율법적 지혜관

성경적 지혜관의 율법적 특징은 신본주의적 특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된 지혜관이다. 무릇 모든 이방 세속 사상에서도 지혜는 다소간 윤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그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인생과 우주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인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단순한 도덕적 입장을 넘어서 절대 초월자요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그 핵심으로 하는 지혜를 용납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것임을 강력히 거듭 지적하고 있다.

성경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 곧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정점으로 하는 참 지혜는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인 것이다.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이나, 상식은 실천해도 그만이요, 실천하지 않아도 그만인 세상 도덕과 달리 우리 전인격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직결된 율법적 지혜인

8) 『그랜드 종합주석/9권』, p.32, 성서교재간행사(1994)

것이다. 9)

4.3.3 실용주의적 지혜관

성경적 지혜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간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과의 수직적 관계(vertical relationship)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지음을 받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세상과의 올바른 수평적 관계(horizontal)안에서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지혜를 현실에 잘 적용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지혜의 실용적 측면에 성경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성경에는 인간관계, 처세술, 언어생활, 근면과 절약, 사회적 존경을 받는 길, 통치자에 대한 자세와 자신이 지켜야 하는 도리와 의무 등이 실용적 분야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10)

4.4 잠언서 를 기록한 목적

‘잠언서’의 대부분을 저술한 저자는 솔로몬이다. 열왕기상 4:32에 의하면, 솔로몬이 3,000 구절의 잠언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본서에는 90 구절의 잠언이 나온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본서는 솔로몬시대(B.C 971)~(B.C 700)까지도 최종적으로 완전한 편집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11)

잠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은(잠언1:1-6) 악을 멀리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첫째는, 참된 지혜의 길을 깨우쳐 여호와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학식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온전한 명철과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 잠언의 대부분을 저술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를 허락 하셨다. 12)

잠언은 단순한 인간의 처세술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생에게 교훈을 주는데 있기 위함이며, 백성들의 일상생활 자세와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계약신앙의 원리를 제공해 주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규범과 법도를 알리려 하고 있다. 사랑의 율법(레19:18, 신6:5)이 구약성서의 중심적인 강조라면, 잠언은 그 사랑의 율법들에 대한 확대된 강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의 종교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윤리와 예절, 도덕적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적인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 ‘잠언’을 집필한 연대는 B.C 970~930년(솔로몬 당대/40년간) 그리고 B.C 728년~687년(히스기야 왕의 재임 때 서기관들에 의해 편집하였다)

4.5 잠언서의 신학적인 의미

9) 『그랜드 종합주석/9권』, p.32, 성서교재간행사(1994)

10) 『그랜드 종합주석/9권』, p.32, 성서교재간행사(1994)

11) 인터네쇼날 신학회 옮김, pp.126-127, 『윌리엄 F.커 성서핸드북』, 동서남북(1993)

12) NiV 한영해설성경 편찬위원회 편저, 『NIV 한영해설성경』, 아가페출판사(1998)

‘잠언’에는 깊은 신학적인 진리가 들어 있다. 본서는 첫째, 구원의 초보를 다룬 책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함을 다룬 신앙생활의 안내서이다. 둘째, 본서는 히브리 지혜문학의 진수를 보여주는 표현과 내용이 담긴 책이다. 그리고 ‘잠언서’에서 조사되는 몇 가지의 신학적 교리를 다음과 같이 입증할 수 있다.

4.5.1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 섭리자로 표현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는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피셨고”(잠3:19)

하나님의 지혜로 조성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우다 ; 야사드, יָסַד , 굳게 하다) , (피다 ; 쿤, כּוּן , 존재를 부여하다)

두 개의 어휘들은 땅과 하늘마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감히 존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시고 하늘을 피셨다는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잘 반영하여주고 있다.

4.5.2 하나님은 기록하시며 의인과 악인을 상별하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잠10:3)

하나님은 본질상 절대적으로 선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차데크; צַדִּיק , 공의롭다, 의롭다, 공정함, 윤리적 도덕적 표준,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음)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돌보고 계신다. 그러나 ‘악인’(라야; רָע , 나쁘다, 악하다, 재난, 나쁨)의 행사는 다 멸하신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하여 악을 행치 않고 항상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생활을 하여야 한다.

4.5.3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우주의 도덕적인 통치자이시다.

“여호와와 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 하시느니라”(잠15:3)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시고, 선인과 악인을 ‘감찰’(차파; חָפַז , 경계하다, 주의하다, 둘러보다, 지켜보다, 망을 보다)하여 구분하시는 도덕적인 통치자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겨질 수 없으며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V. 잠언서 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영적지혜

5.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지혜

5.1.1 잠언에서 말씀하는‘지식’과‘지혜’를 구분하는 영적지혜(1:7)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모든 축복과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며 심판하시는 창조주로서 마땅히 우리 인간이 악에서 떠난 상태에서 인정하고 공경해야 할 거룩하신 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하느니라”(1:7)

***지식(知識; Knowledge , 다아트; ידע , 알다, 의견, 견해, 구별하다, 선악을 아는 것)**

본서에서는 명사로 41회나 사용되고 있으며, 각 개별적 대상들에 대하여 분석적 내지 이론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만을 지칭하고 있다. 동사로(야다; ידע)는 시각이나 촉각으로 감각기관에 의해 얻는 이해를 의미한다.‘지식’은 단순히 어떤 사물에 대한 기술적 이해력을 의미 하고 있다.

***지혜(智慧; Wisdom , 호크마; חכמה , 현명하게, 판별하다, 인지하다, 진리, 정의)**

인생과 우주 전반에 대하여 통합적이고도 직관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을 지칭한다. ‘지식’은 단순히 기능적 측면에서의‘알고 있음’의 요소를 강조한 것이라면 ‘지혜’는 보다 전인격적인 측면에서의 ‘깨달음’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지혜’는 한 인격이 인생의 존재와 의미 전반에 대립하여 갖는 통찰력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세상의 이론적 지식이 없는 자도 그 양심과 이성에 따라 우주의 원리를 추구하면 심오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참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이라고 하였다.

5.1.2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3:9, 9:10, 10:27)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3:9)

***열매(果實, 페리; פרי , fruit 구약성서에 29회 사용, 다산하다, 분기하다)**

***공경(恭敬, 카베드; כבד , 무겁다, 위대한, 견고하다, 영예롭가, 영광스럽다)**

인간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외적표현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열매에는 과실만의 열매가 아니다. 열매에는 세 가지의 열매가 있다.**

- ① 나무의 열매(창1:12)-포도나무 열매(속8:12), 무화과나무의 열매(잠27:18)
- ② 태(자식)의 열매(창30:2, 신28:4, 시21:10, 127:3)
- ③ 말(입술)의 열매(잠12:14, 13:2, 18:20-21)

5.1.3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4:10, 8:35-36, 9:6)

- ①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4:10)
- ②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자는 자기 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 하느니라”(8:35)
- ③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9:6)

- *들으라(聽從, 샤마; שמע , 경청하다, 순종하다, 주목하다, 따르다, 귀를 기울이다)
- *생명(生命, 하야; חיים , 살다, 부유하게 살다, 영원히 살다, 활기, 소생되다)
- *은총(恩寵, 라촌; חסד , 기쁨, 즐거움)
- *영혼(靈魂, 네페쉬; נפש , 생명, 피조물, 마음, 존재, 숨 쉬다, 갈망하다, 사모하다)
- *사망(死亡, 무트; מות , 죽다, 죽이다, 불순종에 대한 결과)
- *어리석음(페티; טפף , 유혹하다, 속이다, 설득하다, 단순한 simple, 어리석은 foolish)
- *명철(明哲, 벤; בינה , 이해력 understanding, 통찰력 insight, 식별하다 discern)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의 생사회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체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5.2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영적지혜

5.2.1 언어생활의 영적지혜(15:4, 20:19, 28:23)

- ①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15:4)
- ②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20:19)
- ③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28:23)

- *온량(溫良, 라파 ; רפא ,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에서 파생하였다.
마르페 ; מרפא , 치료(healing), 건강(health)
- *패려(悖戾, 셀레프 ; סלף , 비뚤어짐, 부정직함, 마음이 비뚤어짐)
- *한담(閑談, 라킬 ; רכיל , 헐뜯는 사람, 중상(비방)하는 사람,
- *경책(警責, 야카흐; יכח , 꾸짖다, 징계하다, 비난하다, 바로잡다)

사람의 언어를 발성(發聲)하게 하는 것은 짧은 ‘혀’이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자의 마음과 심령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과의 언어생활은 자신의 인격과 품격의 경중(輕重)을 가름하고 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언어구사를 들어보면, 지식과 인격, 성품 등을 잘 드러내어 준다. 말(言)은 꼭 필요한 때에 반드시 필요한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큰 유익을 얻도록 하게 한다. ‘온량한’ 혀와 ‘패려한’ 혀를 비교하고 있다.

온량(溫良)한 혀는 따뜻한 말,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 평안을 주는 말, 생기를 불어 넣어 주

는 말, 격려하는 말, 부드러운 말이다. 그러나 패려(悻戾)한 혀는 거짓말과 진리를 왜곡하는 말, 상대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등의 의미가 있다.

5.2.2 가정생활의 영적지혜(19:13, 22:6, 31:10)

- 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19:13)
- ②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22:6)
- ③ “누가 현숙(賢淑)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31:10)

***현숙(賢淑, 하일 ; 현, 권세, 견고하다, 견디다, 변영하다, 강하다, 덕망이 있는)**

가정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으로서 그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가족 간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자녀의 부모공경,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 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과 징계 등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행복한 가정의 영위를 위하여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규례이다.

인간은 상호 소통하며 정보를 교류하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 갈 수 없는 존재이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또는 모든 조직의 공동체의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개인의 가정생활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생 안고 가야하는 중요한 안식처이자 휴식처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그 누구보다도 가족이 지켜보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책임과 의무와 도리를 다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로서 모범이 되는 신앙의 가정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지혜자’는 배려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 가정의 공동체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위해서는 자신의 재능이나 교양이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섬겨야 한다.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은 품행이 단정하며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가리킨다.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진주와 같은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다툼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결국에는 가산도 탕진하고 만다(14:1) 그러나 이와 달리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아내로 인해 크게 만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현명한 아내에게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힘쓰기 때문에 산업이 꺾이지 않고 더욱 풍성해 지는 것이다.

5.2.3 이웃 관계와 의 영적지혜(14:21, 25:17, 29:5)

- ①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14:21)
- ②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25:17)
- ③ “이웃에게 아첨(阿諛)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29:5)

*이웃(레아 ; 𐤀𐤋 , 친구, 동료, 또 다른 사람)

인간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또한 이웃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귀한 피조물이다. 따라서 이웃에 대하여 그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하게 대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웃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돌봄으로써 자신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 놓고 있는 것과 달리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여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지혜로운 생활임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5.3 인간과 경제생활의 영적지혜

경제생활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교환,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생활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지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경영학에서는 ‘재물관리’라는 과목을 배우게 된다. 전문적인 재무관리 기법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제학’을 터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재물을 주셨다.

첫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물로 주셨다. 일용할 양식이란 생계에 필요한 재물을 말한다. 의복과 양식을 얻고, 주택을 구입하며, 자녀를 가르치며, 노후대책 등의 생활비 등을 말한다. 사람마다 필요한 생계비의 액수는 다르다. 그렇지만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경건의 훈련(Training the Godliness)’을 통한 절제와 자족으로 단련되어 기쁨과 평안함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수준이어야 한다.

둘째는,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으로 주시는 것이다. (고후9:10) 《성서》에는 돈에 관련된 일반적인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법칙에 따라,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동식물이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 재물을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 다만 하나님의 재물을 얻고 사용하려면, 충성과 지혜를 겸비한 관리자의 자격과 조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물관리의 시험을 하고 계신다.¹³⁾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소유하게 되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보다 돈에 억눌려 평안한 삶을 빼앗기며, 심지어는 영혼(靈魂, Soul)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물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바꾸지 않으면 현실의 삶에서 돈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나님은 돈을 사용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얻으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신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주시는 공급원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돈에 마음을

13) 신상래 저, 『하나님 경제학』 p.27, 평단(2010)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3.1 재물관리의 영적지혜(11:4, 13:8, 22:4)

- ① “재물은 진노(震怒)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11:4)
- ②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 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험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13:8)
- ③ “검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니라”(22:4)

***재물(財物, 혼 ; 1170 , 많음, 부유, 자산, 충분한, 보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한 의인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적, 육적으로 놀라운 축복들을 나타내고 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많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건강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축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자주 강조되는 교훈이다. 그러나 진정한 부(富)는 재물의 풍족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외적인 부를 얻기 위한 재물에 연연함을 버리고 진정한 부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부의 축적과 올바른 재물관리에 지혜로운 쓰임새가 있어야 한다. 14)

5.3.2 금전문제와 보증문제(6:1-2, 17:18, 20:16)

- ① “내 아들이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6:1-2)
- ②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17:18)
- ③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 잡힐지니라”(20:16)

***담보(擔保, 아라브 ; 2733 , 저당에 넣다, 약속하다, 황혼 twilight, 일몰과 어두움)**

***보증(保證, 아랍다 ; 2733 , 저당, 인질, 차지하다, 쉬다, 간섭하다, ...와 연합하다)**

솔로몬은 젊은이를 위한 열다섯 개의 잠언이 수록된(1:1-9:18) 가운데 아홉 번째의 충고로서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경계를 할 것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신실함에 없는 자에 대한 보증은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 결코 경솔한 보증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신중하라’는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타인을 위해 보증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모세 율법에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야 할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나쁜

14) 『그랜드 종합주석/9권』, p.257, 성서교재간행사(1994)

결과 때문에 보증을 좋지 못한 것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본 절은 보증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보증을 설 때의 경솔함과 성급함에 대한 충고로서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여 주고 있다.

VI. 결 론

본서에서 말씀하는 모든 지혜의 근본은 ‘야웨’에게 있다. ‘야웨’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1:7) 또한 ‘야웨’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9:10), ‘야웨’를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지혜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28:5)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지배자로서, 지혜의 계시가 인간생활에 지침이 되고 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총이 강조되면서도, 인간의 자유의 의지가 존중되고 있다. 잠언서는 전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의 책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연장자의 입장에서, 제왕의 입장에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그 가르침은 두 가지 면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coram Deo) 즉,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서 신앙적인 교훈과 둘째는 사람 앞에서 있는 인간(coram Hominibus) 즉, 인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서 윤리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그리스도인은 지혜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생의 삶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훈의 말씀들을 거듭 묵상함으로써 인생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함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더욱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물질문명의 범람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채 방황하는 현대사회와 기독교사회에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혜자’는 성경의 지혜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보며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할 것이다. 과연 나 자신의 삶은 진실로 지혜로운 삶인가?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도덕과 윤리적인 영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영성과 사람들 앞에 있는 자신의 인성과 신앙으로“하나님 존중의 경영과 인간 존중의 경영(잠16:1-2)”으로 함께 융합되는 융(融)복합적인 기독교 신앙의 리더십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참고문헌]

- 강성림 편저, 『올바른 통독을 위한 성경본문연구』, 성경주석연구소(2011).
- 김재진, 『성경의 인간학』, 예영커뮤니케이션(2007).
- 김학범 편저, 『King Bible』, 세계기독교문화원(2001).
- 대한성서공회 편저, 『표준새번역 개정판, 성경전서』, 대한성서공회(2004).
- 박정윤 저, “솔로몬의 행복한 부자론”: 한국로고스경영학회, 제7권 제2호(2009).
- 박용우 편찬대표, 『개역 개정4판, 문화성경』, 숭실대학교 출판부(2009).
- 성서백과대사전편찬위원회 역편저, 『성서백과대사전 1권-12권』, 성서교재간행사(1982).
- 생명의말씀사, 『NIV BIBLE』, 생명의말씀사(2000).
- 신상래 저, 『하나님 경제학』, 평단(2010).
- 최종진 저, 『구약성서개론』, 도서출판 소망사(1998).
- 툼슨성경편찬위원회, 『관주 톼슨성경』, 기독지혜사(1984).
- 한국성서연구원, 『구약신학사전 I, II, III』, 브니엘 출판사(1991).
- 한성천, 김시열 공동편저, 『그랜드 종합 주석/9권』, 성서교재간행사(1994).
- 한영해설성경 편찬위원회 편저, 『NIV 한영해설성경』, 아가페출판사(1998).
- King James Version, 『Holy Bible』, BY THOMAS NELSON INC(1972).